



보도 일시	2022. 8. 18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8. 18.(목) 10:00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오재우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 권용준 (044-215-4716)

2022년 2/4분기 대외채권 · 채무 동향

- '22.2/4분기말 대외채권 1조 482억불, 전분기말 대비 △317억불 감소
- '22.2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620억불, 전분기말 대비 +79억불 증가
 - 단기외채 증가폭이 축소되고 장기외채는 전분기말 대비 감소*
 - * 증가폭('22.1/4→2/4, 억불) : (단기외채)+102→+89 (장기외채)+115→△10
 - 전분기(+217억불) 대비 총외채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,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(26.7→27.8%),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(38.2→41.9%)은 상승
- 외채 건전성은 ①과거 추이, ②상환 능력, ③세부 원인 등 종합 고려시 여전히 양호한 수준
 - ①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은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,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수준을 크게 하회*
 - *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%) : ('22.1/4)26.7 (2/4)27.8, 과거 10년 평균 28.7, '08.3/4 51.7
 -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%) : ('22.1/4)38.2 (2/4)41.9, 과거 10년 평균 33.8, '08.3/4 78.4
 - ②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* 등 고려시 외채 상환 능력도 충분한 수준
 - * 일반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, %) : ('22.6월말)122.8 <규제비율 80>
 - ↳ 위기상황下 30일간 예상되는 순외화유출액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
 - ③ 2/4분기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 상승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外人 장기원화채권 보유 잔액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 비거래요인 영향도 상당
- 외채 증가 원인 및 만기구조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관리 노력 지속

□ (대외채권) '22.2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482억불로 전분기말(1조 798억불) 대비 △317억불 감소

○ 외환보유액(△195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)의 장기 외화증권 투자(△128억불) 감소* 영향

* 채권 가격 하락, 달러 강세에 따른 이종통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등 비거래 요인에 주로 기인

□ (대외채무) '22.2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620억불로 전분기말(6,541억불) 대비 79억불 증가, 전분기(+217억불) 대비 증가폭은 축소

○ (만기별)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838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89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4,782억불로 △10억불 감소*

* 단기외채 증감(억불) : ('21.3/4)△127 (4/4)+13 ('22.1/4)+102 (2/4)+89

장기외채 증감(억불) : ('21.3/4)+204 (4/4)+162 ('22.1/4)+115 (2/4)△10

○ (부문별) 정부(△54억불) 및 중앙은행(△42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△2억불) 외채는 감소한 반면, 은행(+177억불) 외채 크게 증가

- 정부·중앙은행은 환율 상승(환율 : 3말 1210.8 → 6말 1292.9)으로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外人 보유 장기 국고·통안채(△70억불) 중심으로 감소

- 은행은 외화대출 확대 및 재정거래 유인 상승 등에 따른 단기 외화차입(+132억불) 중심 증가

□ (순대외채권) '22.2/4분기말 순대외채권(대외채권-대외채무)은 3,861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감소(△396억불)

□ (평가) 외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❶과거 추이, ❷상환 능력, ❸세부 원인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외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

❶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,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양호

- 작년말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하락했던 단기외채 비중이 올해 들어 상승*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 및 금융위기 대비 양호**

*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%) : ('21.2/4)29.0 (3/4)26.6 (4/4)26.0 ('22.1/4)26.7 (2/4)27.8

** '12~'21년 과거 10년간 분기 평균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 28.7%, '08.3/4분기 51.7%

- 단기외채 비율의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가 복합 작용하면서 상승*중이나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크게 하회

*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%) : ('21.2/4)38.8 (3/4)35.2 (4/4)35.6 ('22.1/4)38.2 (2/4)41.9

** '12~'21년 과거 10년간 분기 평균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 33.8%, '08.3/4분기 78.4%

② 2/4분기 중 단기외채가 크게 늘어난 은행 부문의 경우, 외화유동성 상황 및 단기외채 세부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한 수준

-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6월말 기준 122.8%로 규제 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

* 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iquidity Coverage Ratio) : 위기상황下 30일간 예상되는 순외화유출액 대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

- 외은지점은 단기 외화차입 대부분이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본지점 차입이며,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*도 함께 고려할 필요

* 외은지점이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한 이후 원화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외화를 원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외화자금시장에 외화공급이 확대

③ 2/4분기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 상승에는 外人 채권자금 순투자 유지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달러 환산액이 감소되며 外人 보유 장기 국고·통안채 잔액이 감소한 비거래요인 영향이 큰 점도 감안*

* 2/4분기 중 外人 채권 자금은 +0.5조원 순투자를 유지하였으나, 환율 상승(3월 1210.8 → 6월 1292.9)에 따른 달러 환산액 감소(비거래 요인) 영향으로 국고·통안채 잔액 △70억불 감소

□ (향후 대응) 외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, 외채 증가 원인 및 만기 구조 추이 등을 면밀히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관리 노력 지속 강화

- 최근 美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, 원달러 환율 상승 장기화시 외환보유액 및 外人 장기 원화채 달러 환산액 감소 등으로 이어져 외채 만기구조 단기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
- 관계기관간 면밀한 공조하에 외채 동향, 자금 유출입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외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
- 공공기관 중심으로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를 통한 외채 만기구조 장기화 노력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

< 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 >

구분	2020	2021				2022		전기비
		1/4	2/4	3/4	4/4	1/4	2/4	
총 외채(억불)	5,506	5,700	6,072	6,149	6,324	6,541	6,620	+79
단기외채(억불)	1,601	1,649	1,761	1,635	1,647	1,749	1,838	+89
장기외채(억불)	3,906	4,051	4,310	4,514	4,677	4,792	4,782	△10
단기외채/총외채(%)	29.1	28.9	29.0	26.6	26.0	26.7	27.8	+1.0%p
단기외채/보유액(%)	36.1	37.0	38.8	35.2	35.6	38.2	41.9	+3.7%p
대외채권(억불)	10,344	10,364	10,633	10,782	10,803	10,798	10,482	△317
순대외채권(억불)	4,838	4,664	4,562	4,633	4,479	4,257	3,861	△396

※ 통계 출처: 2022년 2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2.8.18.)